

전일동향

전일대비 12.00원 하락한 1,472.50원에 마감

27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 대비 12.00원 하락한 1,472.5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6.90원 하락한 1,477.60원에 개장했다. 이란이 미국에 새로운 종전안을 제시했다는 소식이 악달러 분위기를 유도하며, 1,472.50원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8.7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24.13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증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77.60	1478.10	1469.40	1472.50	1473.10
엔화	931.45	935.35	922.29	924.13	-	
유로화	1739.71	1741.02	1722.87	1727.02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1	-3.25	-8.06
결제환율(수입)	-0.04	-2.02	-5.91	-12.01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미-이란 협상 교착화에...1,470원대 중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3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472.50) 대비 2.20원 상승한 1,473.4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 교착화로 상승 전망한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감이 유지되면서 강달러 흐름은 다소 주춤했으나, 양국 간 실질적인 협상은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다. 전일 이란이 종전과 해협 개방 이후 핵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새로운 종전안을 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합의 기대를 일부 높이는 수준에 그쳤고, 에너지 수급 차질과 고유가 우려 등 불안 요인이 이어지며 시장의 경계감을 자극하고 있다. 이렇듯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원화가 뚜렷한 강세를 보이는 것은 어려운 국면으로, 금일 환율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출업체 월말 네고물량의 유입은 환율 상승폭을 제한할 전망이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69.50 ~ 1479.00 원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8563.09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2.20원 ↑
	■ 美 다우지수 : 49167.79, -62.92p(-0.13%)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49.88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4434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